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556 호 현대불교
2025년 11월 26일(음 10월 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에 오직 자기 주인공부터 믿어야 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림 · 최주현

모두가 공했다면,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음은 모양이 없느니라." 그런데 난 애들도 알아듣기 좀 쉽게 하느라고 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걸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 법의 모든 것을 다 결정 지을 수 있는 마음이요, 또 유의 쪽으로는 몸이 행하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둘 아니게 굴릴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스님이 또 있었더랍니다. 어떤 스님이 가르치느라고 지금도 낚싯대를, 낚싯밥을 주욱 걸어 놓고는, '요기에 모두 걸리지 않나, 걸리나?' 하고 그렇게 선조들께서 해 놓으셨죠. 천칠백 공안이니 뭐, 여러 가지로 해 놓고, 천칠백 공안밖엔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어느 거 공안 아닌 게 없죠. 해탈 아닌 것도 없고 도량 아닌 데도 없고, 나 아님도 없고 모두가 그런 도리죠. 그런데 주욱 앉혀 놓고 하는 소리가 "너, 쌀 아닌 쌀을 아느냐?" 이러니깐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쌀 까지 않은 게 쌀 아닌 쌀이죠." 했단 말입니다. 허허허. 그것도 맞죠, 맞기야, 응. 하지만 그거하곤 정반대죠. 그래 또 한 사람한테 묻기를 "너는 그 쌀을 씻어서 밥을 할 때에 밥을 하지 않고 밥을 할 줄 아느냐?" 아, 그러고 물으니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묻기를 "너는 밥 아닌 밥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저 "밥 아닌 밥은 전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저 잡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 처사 말하듯이 "그냥 잡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지. "음, 너는 그래도 좀 뼈다귀라도 얻은 듯하구나." 이러더라는 거죠. "저것들은 모습, 가죽도 얻지 못했어." 그러고. 그랬는데 또 한 사람한테 묻기를 "먹는 사이 없이 먹을 줄 아느냐?"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스님은 아무 소리 없이 나가더니 수박 한 통을 턱 쪼개 가지고는 터억 갖다 놓고는 삼배를 올리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대뇌의 잠재의식 쪽, 현재 의식 쪽이 다 계합이 됐구나." 하더랍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말입니다. "계합이 됐구나!" 이러고선 "너는 참 골수를 얻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껄껄 웃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무걸 떠다 대도 되겠죠. 그리고 이 도리를 공부하면, 책을 보게 되면 벌써 심심하고요, 그 몇 구절 이럭하면 '아, 그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뜻으로 나오지 말로, 이론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요. 거기 그 뜻에 다 있는걸요.

그러니 앞으로 이 공부 하는 분들은 좀 더 살림에 끄달리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은 넓게 보면 나그네요, 좁게 보면 한 철, 찰나, 하루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다' 이런 뜻을 아십니까? 어떠한 뜻입니까? 하루살이다 하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하루살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나 모두.

시공이 돌아가는데,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 이 소리는 '여러분이 초월해서 돌아가라. 거길 따라서 돌아가라.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걸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라 해도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루도 안 들어가니까. 찰나다 이겁니다. 찰나! 여러분이 찰나찰나 사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금방 드러누웠다 금방 일어났다, 뭐, 금방 전등 켰다가 금방 또 딴 사람 만났다가 금방 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찰나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루라는 게 거기 왜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모기더러 말입니다, "술 한잔 먹자." 하니까 모기가 "내일 술 한잔 먹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도 있냐?" 그러더라는 거지. 허허허.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진정코 믿는데도 참 그게 일이 영 안 풀리고 죽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건 모두 당신네들 탓이다 이거야. 왜? 그만큼, 가만히 시험을 해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자기 주인공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에 자기를 올려놓을 수 있고 한 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야, 정성을 지극히 들이고 갔는데 고만 자기가 아프거나 고만 일이 안됐거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긁어서 부스럼 만든 겁니다, 그게. 왜?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했느냐? '에이, 그것 아리송하고 그거 뭐야? 체계도 없고 말이야.' 이러고 그냥 불신하고 생각을 할 때 잘못하니까, 그건 자기가 똑바로 가르치려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지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도록 삐뚜로 나가지 않도록, 오직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부터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자기가 나오기 이전의 영혼은 바로 엄마 아버지의 정자 난자에 배합이 돼서 삼합이 합해져서 탄생을 하는 거다. 임신이 되는 거다. 자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임신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합해져도 영혼이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삼신이라고 했고, 삼신이 받아들여야, 삼신이 합해져야 임신을 한다고, 그래서 삼신에게 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삼신도 여러분한테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생각에서 여러 가지 찰나찰나 하시듯이 그렇게 보살의 이름도 많고 부처님의 이름도 많지만,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시고 보살의 그 많은 이름도 바로 부처님의 화신인 이름일 뿐입니다, 다. 그냥, 전체가. 그러니 화신 보살한테 부처님께서는 핵이 돼서 말입니다, 핵이 돼서 위도 아래도 없는 중도의 밥그릇에다가 밥을 한 그릇을 준 것은, 즉 말하자면 보살한테는 칠보가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한테 주고도 줄지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게끔 항상 내고 들이고 해도 항상 되남더라. 이런 게 보살의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모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살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화신들이다'라는 얘기죠.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닌 게 부처님이니까. 진리입니다. 하도 이름이 많고 나 아님이 없으니까 뭘로 부처를 세울 게 있어야지.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 식구가 그저 찰나찰나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거 할 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죠. 친구를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자식을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부인을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한마음의 본래자성불은 한마음이 붙어서 서로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아주 견고한 마음으로써 항상 진짜로 믿고 행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아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고라는 걸,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